

삶과 소명을 새롭게 하는

## 재입국 디브리핑(reentry debriefing)

엄은정 (하트스트림 한국센터 대표)

디브리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다. 물론 영어 단어로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선교사들은 종종 모호함을 표하기도 한다. 흔히 디브리핑을 ‘훈련’이나 ‘프로그램’, ‘교육’ ‘상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 글에서는 특히 재입국 디브리핑(reentry debriefing)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전적인 의미로 디브리핑은 특수한 임무를 마친 후, 수행한 임무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본래 디브리핑은 군에서 시행되었던 것으로 임무와 작전 수행, 공적 진술과 현장 복귀를 목적으로 행해졌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를 끝낸 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학술적 의미의 디브리핑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디브리핑들은 사건 및 사실 중심적인 진술과 보고형태를 갖는다. 다른 형태로는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때 입은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하도록 돕는 심리적 디브리핑이 있다. 디브리핑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집단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행해진다. 상기 모든 디브리핑에서 개인의 권리와 비밀보장에 대한 윤리적 행동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디브리핑의 중요한 요소이다.

멤버케어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이십여년이 되었지만, 국내 선교단체에서 멤버케어 시스템을 만들고 구성원들을 본격적으로 케어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멤버케어나 디브리핑에 대해 선교사들이 모호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선교사가 사역의 일정 기간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올 때 선교사가족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불편함과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안식년 전후로 겪게 되는 것들을 재입국 스트레스 (reentry stress)라고 부른다. 짧은 기간의 여행일지라도 이전에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면 전에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오랜 타국 생활에 익숙해진 선교사들에게 고국이 낯선 나라로 경험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기간에는 경미한 상태에서부터 극심한 충격 상태에 이르는 심리,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데 선교사 자신들과 선교사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관대함과 호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흥미로운 것은 선교사가 어떤 문화권에서 귀국했는지에 따라 고국은 친절한 나라로 혹은 매우 불친절한 나라로 느껴지기도 한다.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돌아온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의 말과 태도가 거칠게 느껴져 매우 당황하게 된다. 종교 활

동이 제한된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맘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새롭게 경험된다. 이렇듯 재입국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에는 개인차가 있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개인의 대처기술도 중요하지만, 개인을 대하는 케어와 환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멤버케어는 선교사의 재입국 과정에서 심리, 신체, 영적 건강상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멤버케어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기 위해 동원된 선교인력에 대한 총체적인 돌봄과 개발을 실행하는 일이다. 멤버케어가 최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체적인 자기 돌봄과 조직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돌봄과 책임이 상호 교환될 때 가능해진다. 멤버케어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조직의 선교철학과 핵심 가치를 조직원들 간에 공유하고 실현시키는 원동력으로서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흔히 멤버케어를 건강검진, 상담과 같은 복리후생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념을 가진 사람은 ‘받는자’ ‘구하는자’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한다. 이러한 관점에 고착된 사람은 케어 담당자들에게 과도하거나 무례한 요구를 하게 되며 케어 담당자들은 열악한 멤버케어 기반 위에서 종종 좌절하게 된다.

멤버케어가 조직의 공동 관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케어의 ‘상호교환자’, ‘나누는자’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해야 한다. 나아가 멤버케어가 선교사의 타문화권 생존을 돕는 것으로부터 생애사적 발달과정과 역량개발에 주력하는 수준에 이르면 조직의 구성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 교환자’로서 케어가 함축하는 의미에 대해 부연하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과 같다. 선교사는 문화를 초월해 이 계명을 몸소 실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선교사가 속한 지체와 공동체 안에서 이 계명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가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돌봄을 배워야 한다. 멤버케어는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그분의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삶과 사역을 이끄는 철학과 가치도 그분으로부터 흘러 우리 안에 유입될 때, 비로소 은혜의 좁은 길을 갈 용기가 내면에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디브리핑을 실행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서두에 소개된 사건 진술형의 디브리핑은 성경적 디브리핑과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성경적 디브리핑은 임무 완성이나 사건에 대한 진술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취한 임무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이웃을 통해 성취해 가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에 있다. 이것은 미세한 차이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들에게 영적 충만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의 수단이 된다. 필자는 이 독특한 은혜를 선교사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멤버케어 사역자로서 느끼는 기쁨이며 특권이기도 하다.

선교사들은 여러 방편을 통해 형식적, 비형식적 디브리핑에 참여한다. 가족과 동료, 후원자들과의 대화, 교회와 선교단체에서의 선교보고, 단체장과의 면담과 같은 것들은 디브리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선교 보고서를 작성하고 홍보영상 등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와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선교 보고는 사건. 사실 중심의 성격을 띠며 ‘공적 디브리핑’으로 구분된다. 어떤 측면에서 공적 디브리핑은 선교사에게 선교적 책무나 성과 등을 의식하게 만들고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선교의 열매를 쉽게 얻지 못하는 이슬람권 사역자들은 공적 디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무능력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만약 교회가 성과 중심, 물량주의의 세속문화에 젖어 있다면 화려한 영상물이나 기적적이며 감동적인 간증에 매료될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가 빈손으로 돌아올 지라도 상한 마음과 치친 몸을 설 수 있도록 자신의 품을 내어주는 교회 공동체는 진정으로 주님의 케어를 깨닫는 자들이다. 필자는 멤버케어가 선교단체들에 도입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이제 케어의 물꼬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는 소망을 저버리지 않을 생각이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막 6:31).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며 그들이 주님께 귀환할 때의 장면들을 연결해 보면 ‘침의 초대’로 임무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된다. 자칫 선교사들은 디브리핑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디브리핑을 받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 그것은 디브리핑에 대한 잘못된 견해이다. 디브리핑은 사건 진술을 넘어서 사역을 멈추는 시간이며 주님과 지난 사역에 대해 꼼꼼히 대화하고 반추하는 시간이며, 침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이러한 디브리핑은 내적 성찰과 반성, 감사, 찬양, 미래에 대한 전망과 소망을 내포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삶과 사역,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삶과 사역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부여된 미션 청사진을 그리는 머무름의 시간이다. 공적 디브리핑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이와 같은 머무름의 시간은 매우 개인적인 특성을 내포하므로 개인적 디브리핑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디브리핑은 공적 디브리핑과 개인적 디브리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교사들은 안식년을 맞아 공적 디브리핑을 당연시 해왔다. 반면 개인적 디브리핑을 위한 안전한 공간과 디브리퍼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선교사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시간이나 영성수련회, 동료나 선배 선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개인적 디브리핑의 시간을 가졌다고도 말할 수 있다. 종종 필자는 디브리핑에 대한 동기가 적은 선교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곤 한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디브리핑을 꼭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디브리핑은 단순히 속이야기나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개인적 디브리핑은 포괄적이며 반구조화된 형태의 심층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디브리핑 대화를 안내하는 디브리퍼 (debriefing)는 디브리

피 (debriefee)에게 다양한 관점의 삶의 영역들을 질문함으로써 디브리피에게 그 자신의 스토리를 전개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브리피는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안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디브리핑과 담소를 나누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또한 디브리핑은 디브리피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룹이나 가족, 개인 단위로 행해진다.

필자는 종종 디브리핑과 상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받는다. 독자들도 또한 이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이다. 이 둘의 관계는 건강검진과 수술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검진을 디브리핑에 비유한다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을 재검하고 치료를 행하는 것은 상담에 견줄 수 있다. 그러므로 디브리핑이 디브리피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상담은 상담가와 내담자의 협력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과 치료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디브리핑 이후에 상담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외에도 디브리핑과 상담은 비밀보장과 윤리이행에 대한 서면 동의와 안락한 대화의 장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사적인 내용이 이야기되는 개인적 디브리핑은 선교단체의 외부기관에서 행해질 때, 선교사들이 보다 편안하게 느끼는 경향이 훨씬 높다.

필자는 하트스트림에서 제공하는 디브리핑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하트스트림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금년으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으며 한국센터는 필자와 필자의 남편, 최형근 박사(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목사)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하트스트림의 공동 창립자이며 선교사였던 로이스와 래리 다즈(Lois & Larry Dodds) 박사 부부는 선교사 멤버케어를 위해 공동체적 치유에 근거한 전인적이며 통합적인 SPARE CARE 모델을 구축했다. 한국 하트스트림에서는 한국 선교사의 상황에 맞게 이 모델을 적용해 멤버케어를 실천하고 있다.

디브리핑의 과정은 선교사들의 전인적인 돌봄과 계발, 성장을 목표로 영적, 신체적, 실현적, 관계적, 정서적 (spiritual, physical, actualized, relational, emotional: SPARE) 영역들을 이야기(story-telling) 하고 조직적 (organizational), 문화적 (cultural) 영역들의 필요와 성장점을 성찰한다.

디브리핑 영역	
영적 케어 (Spiritual Care)	소명과 영성 확인
신체적 케어 (Physical Care)	건강상태, 셀프케어
실현적 케어 (Actualization Care)	은사 및 비전 성취, 정체성, 경력개발
관계적 케어 (Relational Care)	대인관계 (가족, 동료, 현지인 등)
정서적 케어 (Emotional Care)	심리, 정서적 안녕감
조직적 케어 (Organizational Care)	파송단체/교회의 소속감, 철학, 가치 이해
문화적 케어 (Cultural Care)	문화적응 및 타문화 생활

디브리핑이 제공되는 장소는 선교사들에게 보다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아파트 주거공간에 마련되었다. 선교사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트스트림의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며 쉼의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안식을 경험하곤 한다. 기간은 2박3일~3박4일 진행되며 60~90분씩 총 7회기의 1:1 면담 세션이 오전, 오후로 진행되며 저녁시간은 자유롭게 보낸다. 이외에도 디브리핑은 말씀 나눔, 식탁 교제, 기도의 시간들로 채워진다. 디브리핑을 마치면 단체가 멤버케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 소견을 멤버케어 부서에 보낸다.

필자는 지난 십 수 년 동안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나누었다. 어느 날 필자는 선교사가 떠난 후, 상담실 쓰레기통에 수북이 쌓인 크리넥스 티슈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오랫동안 그 쓰레기통을 보며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주님의 제자이기에 흘릴 수 있는 슬픔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다. 필자는 이후로 그 쓰레기통을 눈물의 바스켓 (tear basket)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선교사들과 그들을 파송한 선교단체와 교회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결코 혼자 울지 말며, 혼자 울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제자들입니다.”

필자는 또 하나의 다른 바스켓을 소개하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미국 하트스트림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15년 넘게 선물 바구니를 만든 샤론 후버(Sharon Hoover)가 있다. 샤론은 그 바스켓을 축복의 바스켓 (blessing basket)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바스켓을 만드는 것은 ‘손재주’가 아니라 ‘부르심’이라고 했다. 그것은 자원하는 영이며 사랑하는 마음이고 기도의 용사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신다고 증언했다. 필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 샤론과 같은 이들이 더 많이 헌신되기를 소망한다. 주님께 당신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을 돌봄의 도구로 쓰실 뿐만 아니라 당신 또한 새로워지는 은혜의 이야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